

## ■ 지방 없는 나라는 없다

### ① '서울 공화국' 만드는가

# 국토 정책 지방 외면땀 '경제 파탄'

“소선거구제가 생기고 여당이 153석을 차지한 것은 역사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전국 정당들의 기반을 잡은 적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4·9총선거결과에 대한 평가다. 그는 이 결과를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으로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전체 의석 111석 가운데 73%인 81석을 석권했다.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권의 수도권 편향 정책 발표가 줄을 이었다. 지난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과거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획일적 평준화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28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15일엔 국토해양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공동연구단'이 수도

권 집중 및 성장 억제정책을 대폭 수정, 수도권에 국가 경제를 이끌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경제효과 과다 산출 문건' 유출, 국토부 작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 문제점

## 당정 '수도권 위주 정책' 속셈 드러내 18대 국회 '수도권-지방 대결장'으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도 같은 날 중앙 언론에 실렸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서울과 인천, 경기를 묶어 세계적 경제권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16일에는 청와대도 기다렸다는 듯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20여개 공기업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혁신도시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놓았다. 이들 공기업 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전'은 현재 민영화 1순위에 올라

있다.

지방에서 '불복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자, 17일 정중환 국토부장관이 나서 "혁신도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엔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회의에선 한승수 국무총리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불끄기에 나섰지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불씨를 살렸다.

정치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맞대결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내 수도권 당선자들은 '혁신도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남권

등 지방 당선자들은 '혁신도시 지속의 당위성'으로 맞서고 있다. 18대 국회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 표명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식이고 청와대는 '원점 재검토' 입장만 내놓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공식까지 한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뒤늦게, 수도권 규제 해제를 노골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 공화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강남 대 비강남의 대결을 부추기는 분할의 정치를 해서 국민 갈등을 조장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는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지방없는 나라는 없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지구의 날' 광주 금남로 자전거행진

'지구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지구가 미안해!' 행사에서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FTA 연내 비준·주한미군 동결

###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 한·미 정상회담 합의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주한미군 동결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도전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동맹적 우방관계를 대체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일 저녁 특별기편으로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다. /연합뉴스

## 社告

### 제35회 光日 보훈대상

#### 수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35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에 극복하고 뜻깊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지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지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노력한 사람

- 접수: 2008년 4월 30일(수)까지
- 발표: 2008년 6월 2일(월) 광주일보
- 시상: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시상일시: 2008년 6월 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광주시민회관(광주공원내)
- 문의: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650-0163)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 소값 20% 폭락 한우농가 타격

### 사료값 폭등 이중고... 정부 21일 대책 발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소식에 20일 열린 나주 영산포 우시장 등 전

국의 산지 소값이 15~20%가량 일제히 폭락하는 등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축산농가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20일 전남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급 쇠고기는 1kg당 3.5달러~4달러로, 우리나라 1등급 한우 도매가격(1kg당 1만 5천원)의 25% 수준에 불과해 한우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번 쇠고기 개방으로 오는 5월부터 식탁에

오를 쇠고기의 올해 수입량은 27만2천t으로 늘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07년 20만3천t보다 34% 많다. 올해 수소 산지가격도 지난해 474만원에서 올해 424만원으로 10.5%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남도내 한우 농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나주 영산포 우시장의 거래에서 송아지값과 수소의 값이 지난 5일 전보다 15~20%가량 떨어진 점을 들어 20% 이상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사료 값도 6개월 전에 배 이상 올라 축산농가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국내산 돼지고기와도 가격이 비슷해 돼지고기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은 미국 쇠고기 수입시 국산 돼지고기값은 15%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배 전남한우협회장은 "사료값이 폭등했는데 4분의 1 값도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무차별 수입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대책을 21일 발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가 12일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19일 오후 5시30분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이씨는 곧바로 모스크바 인근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로 이동, 지구환경 적응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16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0일동안 머물며 우주임무를 수행한 이씨는 러시아 우주인 선장 유리 말렌코, 미국 여성우주인 페리 윌슨과 함께 19일 오후 2시(한국시각) 귀환 우주선 소유즈 TMA-11에 탑승, 오후 5시30분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공항 남동쪽 350km 초원지대에 무사히 착륙했다.

우주인 3명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며 이씨는 28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립전남대학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소수에게 허락된 왕가의 명예 -

디자이너스타 인트러클립

히스트리클레스 (10억) 100원 모집 마감일바

2008년 4월 21일 - 4월 23일

<p>● 문의: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p>● 후원: 062-650-0163</p>
---	---	---	---